빅데이터의 종류 3가지

1. Voulme (데이터의 크기)

빅데이터는 이름답게 그 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크기가 엄청납니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이용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했고, 어떤 경로로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실제 결제를 진행했는지 등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 및 축적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TB(테라바이트) 이상의 단위를 사용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 Velocity (데이터의 속도)

데이터의 생성은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지며

생성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고 시각화되어

이용자가 분석 및 확인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신속한 과정만을 요구합니다.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내용만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실시간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빠른 분석과 처리가 요구됩니다.

3. Variety (데이터의 다양성)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만이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SNS, 비디오 등과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위치 정보, 로그 기록, 이메일 등에서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터 역시 수집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종류의 데이터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았더라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을 빅데이터로 규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